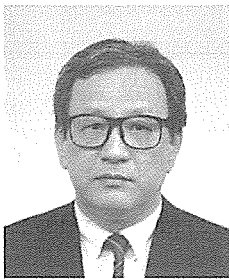


식량정책 大轉換 絶실하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봄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이모작 보리나 밀을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논면적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현재 89%로 떨어진 쌀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난 독재시대부터 우리의 전형적인 곡물인 밀이 푸대접을 받아 식량소비량의 30%나 차지하던 밀농사가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밀만 자급해도 연간 5억달러라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洪 丙 熹

〈고려대 자연자원대 식량자원학과 교수 / 한국작물학회 회장〉

그년 들어 IMF사태로 온 나라가 초긴장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배 이상으로 평가 절하된 우리의 화폐 가치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식량과 사료를 수입하는 데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게 되었다. 달러가 없으니 미국 농무성에 곡물 구매자금을 대부분아 겨우 곡물값을 치르는 국가적 수모를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미력이나마 식량생산을 위한 연구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당황했던 심정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며칠 전 남부지역을 기

차로 여행하면서 텅 비어있는 논과 밭을 보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봄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모작 보리나 밀을 더 이상 찾기 힘들 정도로 들녘이 비어 있었고 농협이 수매해주는 맥주보리가 심어진 논이 가끔 눈에 띄는 정도였다. 새로 교체된 정부도 쌀만은 자급해야 한다는 농산정책의 기초를 발표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1990년 이래 현재까지 8년간 논면적이 약 15만정보 감소하였고 인구 증가에 의한 도시의 확대, 공장부지 조성 확대, 경제성이 높은 작물로의 작목 전환 및 노동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휴경 등으로 현재는 전체 논면적의 88% 정도만이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적 배려와 행정적 도움을 마련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농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논면적의 점차적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현재 89%로 떨어진 쌀의 자급률을 100%로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몇 과제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쌀 증산...자급실현 노력을

벼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2004년까지 초다수성 품종 육성, 일대 잡종 육성 등 모든 육종 기술을 동원하여 1ha당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벼 품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진심으로 그러한 의욕적인 목표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성취되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자포니카 계통의 품종들은 그간의 증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준에서 5MT/ha 내외의 수량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가장 수량이 높다는 인디카 계통의 다산벼나 남천벼도 시험장 수준에서 7MT/ha 내외의 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낮은 수준의 수량이 아니다. 3탄소 작물로서의 한계가 이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면서 이것을 극복할 재배법을 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시아 또는 미국의 쌀 생산성도 거의 시험장 수준의 수량에 근접해 있고 더 이상 도입할 증수기술이 없어 수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둘째로 생산자원의 황폐화, 고갈, 오염 등의 부정적 요인이 날로 심화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수자원이 그러하고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가 그러하고 심화되어 가는 환경 오염이 그러하다. 이러한 여건 변화의 수정은 많은 투자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로 현재 강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 유기농업, 환경농업, 지속적 농업 등 기본적으로 수량면에서 다수확 재배와는 상반된 개념을 갖는 재배법이 확대되려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하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어느 정도 면적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배법은 국가적으로는 벼 증산에 부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다.

넷째로 WTO 체재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직파 재배법과 같은 생력 기계화 재배법이 앞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법은 이앙재배보다 생력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 효과가 크나 한편으로는 조방적 관리체제로 이앙재배보다 수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배 체계하에서는 초다수성 품종이라도 생산 능력의 발현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직파 재배의 면적이 증가하면 이 또한 벼 증수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농지의 생산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대만에서 다 같이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논은 계속하여 주택지나 공장용지로 전환되고 고부가가치의 과채류 재배지로

전용되면서 식량 생산의 점진적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여섯째로 현재 논 토양에는 비료분의 과다 축적으로 수질 오염이 문제 되고 있으나 벼 재배는 습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료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비료의 증수 효과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최근 10년간 비료 사용량이 정체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문제로서 통일이 되든 그렇지 않든 북쪽의 식량을 부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경우를 상정할 때 우리의 식량 문제는 거의 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면서 미래를 조망할 때 쌀의 자급률은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WTO 후속 농산물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쌀의 완전 개방을 저지해야 하겠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밀, 보리의 자급률을 높여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산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논면적 중 맥류 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60만ha 정도가 되는데 현재는 이 면적의 10% 내외가 실제로 경작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비교우위론에 희생된 가장 전형적인 곡물이 밀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공산품의 수출시장 유지를 위한 희생물이 또한 밀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 식량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밀을 가능한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도록 식량 생산의 기초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찰밀 생산을 계기로 밀 총 소요량의 20%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한다. 왜 우리는 못 하는가? 우리나라도 세계적 수준의 품종도 개발해 놓았고 재배법도 개발되어 있다. 문제는 식량으로서 동일한 정책적 배려만 하면 된다. 최근에 육성하여 보급한 참쌀보리를 보자. 호화(糊化) 온도도 낮아 그대로 쌀과 섞어 밥을 지으면 부드럽고 차져서 먹기도 좋고,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높아 건강식으로 매우 우수하다. 농협이나 정부가 양곡 처리장에 정맥기나 제분기만 설치해도 맥류의 재배 면적은 자가 소비적 차원에서도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농협 등과 계약 생산 체계를 개발하여 실시하면 밀의 국내 생산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보리나 밀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ha당 4M/T은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가능한 60만ha에서 생산하면 약 2백40만 M/T의 생산이 가능하고 5억4천달러의 외화가 절약된다. 한푼의 외화가 아쉬운 지금, 농업에서도 거품을 빼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외화도 절약할 때이다. 이제 식량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⑤7